

“딸 안죽었다” 뻔뻔한 친부

〈고준희양〉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양 압매장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장의 말에 귀기울였다.

친부 고씨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딸이 숨지기 전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폭행과 사망 연관성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처사의 결정적인 날로 공소제기된 지난해 4월 24일 고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거녀 이씨와 김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랑한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고자 노력했지만 준희 양이 있는 상처 때문에 고씨가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준희양이 사망할 당시에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초 피해자 실종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이미 준희양의 사망과 유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만큼 혐의 적용에 있어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압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때를 쓴다는 이유로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 40분~50분께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에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아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 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뉴시스



도로 약취 예방... 은행나무를 털자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지난 2일 전주시 덕진구 인덕원로 일대 은행나무들이 열매를 맺자 관계자들이 약취 예방을 위해 은행을 털고 있다.

완산구, 하천 내 교란식물 제거

전주시 완산구는 가을을 맞아 하천 내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한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교란식물 '가시박'이 전주천과 삼천에 많이 퍼져 있으며 가을철이 번식기인만큼 집중 제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이며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모양이 박을 닮아 '가시박'이라 불린다.

주변식물들을 덩굴로 감고 햇빛을 차단하여 고사시키는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환경부에서는 2009년 6월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해 퇴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시박은 가을철 열매가 떨어져 물을 통해 하류로 번식하기 때문에 가을철이 제거하기 좋은 적기다.

따라서 완산구는 열매가 떨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집중 정비해 가시박 씨앗이 하류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거, 번식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음악방송 '큰 호응'

전주시 덕진구청은 매주 평일 아침 진행되는 구청내 음악방송이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덕진구 아침음악방송'은 평일 아침 8시 30분부터 25분간 주 4회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임용호 경제교통과팀장, 수요일 박시영 건축과주무관, 목요일 양영숙 행정지원과장, 금요일에는 박혜주 생활복지과 주무관 등 직급, 성별, 연령대가 다양한 직원들의 아침음악방송은 울드림에서부터 최신가요에 이르기까지 4인 4색의 각기 다른 음악 선곡과 진행방식으로 진행 한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은 "사연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선곡한 음악이 청취자들에게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여성취업 아카데미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2일,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덕진구 여성취업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진행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상반기(과학탐구·진로코칭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1급)에 이어 하반기에는 창의로봇지도사와 이동로봇지도사1급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교육 대상자는 덕진구에 거주하는 미취업상태의 취업의지가 확고한 경력단절 여성으로 출석률 80%이상일 때 교육비(교육비, 재료비 포함)를 지원한다. /송효철 기자

'세계동물의 날' 을 맞아

전주동물원, 6일부터 이틀간 행동공부화 활동 공개

전주동물원에서는 오는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오후 3시 30분부터 동물원 내 기린사에서 동물행동공부화 활동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린다.

전주동물원과 사단법인 카자(KAZA,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장 어경연)는 오는 10월 4일 '세계동물의 날'을 맞아 화원사(서울동물원, 서울어린이대공원,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부산삼정더파크)와 공동으로 '해양동물 보전을 위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및 동물 행동공부화 활동 공개 행사를 진행

한다고 3일 밝혔다.

동물행동공부화는 사육동물에게 환경과 먹이 등을 통한 자극을 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동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동물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해양동물들의 심각성을 알릴 목적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캠페인과 관련해 페이스북(www.facebook.com/1985KAZA) 이벤

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멸종위기동물 디자인 기념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조동주 전주동물원장은 "세계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금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분들께서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해양동물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동물의 날은 동물 애호·보호를 위한 세계 기념일로, 지난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생태학자대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8일부터 한달간 38개 지정동물병원 등록 3개월령 이상 개 대상

1000만 반려견 시대를 맞아 전주시가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달간 전주지역 38개 지정동물병원에서 등록 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고 2일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간 내에는 평소 2만원 정도 지불해야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5,000원 정도의 접종수수료만 지불하고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총 1,500마리를 접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00마리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약품이 조기 품질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제 의무 등록 대상이기도 한 만큼 예방접종 기간을 이용해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동물 병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지역특색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전주시,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개 발굴 내년 3월 추진

전주시가 청년들에게 지역특색에 맞는 20여개 일자리를 발굴했다.

전주시는 관련 국비를 확보해 220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19개의 사업을 발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자유형 4가지로 구분해 청년들에게 창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시는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기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국비 831억원에서 2,686억원(전년대비 223% 증가)으로 대폭 확대될

에 따라 올해 6개 사업 132명보다 많은 19개 사업 220명 규모의 청년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특화형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존 추진해온 △사립 미술관·박물관 큐레이터 배치운영 △전주푸드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벤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buy전주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공간 '홍부' 추진사업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장애인일자리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지원사업 △도시재생 뉴딜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주거복지 청년전문가 양성사업 △시민안전지킴이 양성사업 등 청년 2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19개사업을 발굴했다.

발굴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초에 최종 사업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추진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